

유방암 생존자의 인조유방 사용경험

전은영¹ · 최순란² · 강희선³

나사렛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¹, 제일병원 유방전문간호사², 중앙대학교 적십자 간호대학 부교수²

Experiences of the Use of External Breast Prosthesis among Breast Cancer Survivors in Korea

Jun, Eun-Young¹ · Choi, Soon Ran² · Kang, Hee Sun³

¹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Korea Nazarene University, Cheonan

²Breast Cancer Coordinator, Cheil General Hospital & Women's Healthcare Center, Seoul

²Associate Professor,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xperiences of the use of external breast prostheses among breast cancer survivors in Korea. **Methods:** A qualitative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using focus groups. Data were collected from breast cancer survivors who were patients of C women's hospital in Seoul, Korea. Data were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in order to identify significant themes. **Results:** Participants included forty breast cancer survivors who had mastectomy as a surgical treatment. Four themes emerged from the collected data were: 1) concern over the high price of external breast prosthesis, 2) irregular use of external breast prosthesis, 3) unsatisfied with mastectomy bra, and 4) wanting to hide or not to talk about using breast prosthesis openly. **Conclusion:** Since most participants reported irregular use and negative experiences related to external breast prosthesis or mastectomy bra use, healthcare workers should allow more time for proper fitting and counseling and consulting with breast cancer survivors. In addition, health care providers as well as family and friends should keep in mind that cancer survivors need support that can help them cope by using positive reframing. Furthermore, improvements in the coverage of costs and services are needed for these women. This would be helpful for breast prosthesis users.

Key Words: Breast neoplasms, Breast prosthesis, Mastectomy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유방암은 여성에게 있어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암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방암 환자가 증가추세이며(WHO, 2011), 우리나라도 여성 암 환자 중 14.4%가 유방암이다(The Korea Central Cancer Registry, 2012). 하지만 다양한 치료방법의 개발

과 적극적인 치료로 인해 생존율은 점점 높아져(The Korea Central Cancer Registry, 2012), 유방암은 여성에게 흔한 암일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의 하나로써 간주되고 있다. 의학기술의 발전과 조기발견으로 유방암 초기의 여성들은 부분절제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지만(National Cancer Information Center, 2010), 유방암이 진행된 경우에는 전 절제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유방암 환자의 절반 이상이 완전 유방절제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이다(Glaus & Carlson, 2009).

주요어: 유방암, 인조유방, 유방절제술

Corresponding author: Kang, Hee Sun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84 Heukseok-ro, Dongjak-gu, Seoul 156-756, Korea.
Tel: +82-16-569-4370, Fax: +82-2-824-7961, E-mail: goodcare@cau.ac.kr

투고일: 2012년 2월 28일 / **수정일:** 2012년 3월 8일 / **게재확정일:** 2012년 3월 16일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따라서 유방암 생존자들은 유방절제술을 받은 후 유방의 상실로 인해 여성성의 상실 및 왜곡된 신체상(Kim, 2010; Lee, 2007)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생존자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유방절제술 후 외과적 유방재건성형이나 인조유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유방암 생존자들의 회복과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Gallagher, Buckmaster, O'Carroll, Kiernan, & Geraghty, 2010), 신체 이미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서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Roberts, Livingston, White, & Gibbs, 2003). 그렇기 때문에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이 가운데 유방재건술을 받는 생존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유방재건을 위해 여러 번 수술을 해야 하는 문제와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일부 유방암 생존자들은 인조유방을 선택하고 있다(Baron, 2007).

인조유방은 사이즈와 모양, 그리고 유두 및 유륜의 유무에 따라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어 모든 연령층의 여성들이 자신의 유방과 거의 유사한 인조유방을 고를 수 있다(Glaus & Carlson, 2009). 그러나 대부분 인조유방에 대한 적절한 정보의 부족과 지속적인 관리의 부재로(Gallagher, Buckmaster, O'Carroll, Kiernan, & Geraghty, 2009; Mahon & Casey, 2003) 인조유방을 간헐적으로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Roberts et al., 2003).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구입에 있어 수술한 병원에서 직접 제품을 소개받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알아봐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 구입절차에 대한 번거로움이 있고(Kim, 2004), 인조유방 선택에 대한 여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착용자에 대한 신체 적합성이나 인조유방의 무게로 인한 불편함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Choi & Lee, 2001) 인조유방을 지속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유방암 생존자들에 대한 어려움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방암 생존자들에게 있어 적합한 인조유방의 선택과 피팅과 같은 서비스와 관리 등은 유방절제술 후에 야기되는 여성성 및 신체상과 같은 정서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 불균형에 따른 체형변화 문제까지도 도울 수 있기 때문에(Gallagher et al., 2010) 이와 관련된 연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유방절제술 후 유방암 생존자들에게 제공되는 간호로서 인조유방과 관련된 교육은 간호사가 실시해야 할 중요한 영역 중 하나로 적절한 인조유방의 선택과 피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유방암 생존자의 회복과정에 있어 중요하며(Mahon & Casey, 2003), 유방절제술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Roberts et al., 2003). 실제로 유방절제술을 받은 여

성 환자들의 서비스 욕구를 조사한 결과 정서 심리적 지지 서비스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발이나 인조유방의 무상 및 저가 대여와 지원 등의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Lee, 2002), 인조유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제공 등은 유방암 생존자의 신체간호와 심리적 지지를 위한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근거에 기반한 인조유방에 대한 평가는 인조유방 사용에 따른 개선과 이와 관련된 적응을 가져옴으로써 유방암 생존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Healey, 2003).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조유방과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상태로 인조유방 착용에 대한 유방암 생존자들의 경험 및 환자교육과 관련된 연구와 보정용 브래지어 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소수 있을 뿐, 유방절제술 후 인조유방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유방암 생존자들은 대부분 서양에서 수입한 인조유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평생 착용해야 하는 인조유방을 받아들이고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경험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방절제술을 한 유방암 생존자 중 인조유방을 착용하는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인조유방 사용 관련 경험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유방암 생존자들의 인조유방 사용경험을 파악하는 것이며, 이는 인조유방을 사용하는 유방암 생존자들의 만족도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얻기 위함이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포커스 그룹을 통한 유방암 생존자들의 인조유방 사용경험을 알아보고자 하는 질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소재의 C여성전문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유방절제술을 받은 유방암 생존자로 참여 가능한 대상자는 유방암 수술 후 유방절제술을 받은 자, 인조유

방을 사용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인조유방을 사용하고 있는 자이며, 유방재건술을 받은 자, 그리고 재발 또는 다른 암에 이환 된 자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C여성전문병원의 IRB (Institutional Review of Board)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였으며, 자료수집은 총 40명을 대상으로 2011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포커스그룹을 통해 진행하였다. 먼저 유방외과 환자명부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자가 직접 전화한 후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에게 스케줄을 물어보고 약속시간을 정하여 내원하게 하였다. 포커스그룹은 10명 이내 단위로 총 6개 그룹이었으며, 장소는 병원 내 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여 서면 동의를 받았고,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로 진술된 내용에 대해서는 익명성의 보장과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그리고 참여자가 원하면 인터뷰를 중도에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포커스그룹의 운영은 참여자들에게 포커스그룹 진행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준비단계로 간단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편안한 분위기를 만든 후 진행하였다. 포커스그룹 진행은 ‘인조유방과 인조유방용 브라를 사용하며 경험한 내용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로 시작하였고, 진행과정에서 ‘인조유방과 인조유방용 브라를 사용했더니 어떠한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는지,’ ‘가족이나 친구 등과 인조유방에 관해 얘기하시는지’ 등에 대해 얘기하도록 하였다. 진행과정동안 진행자는 참여자들 모두가 골고루 자신의 경험과 견해를 얘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다. 면담 종료 전에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 외에 인조유방과 인조유방용 브라와 관련하여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은 없으신지요?’ 라는 마무리 질문을 하여 관련내용이 충분히 얘기되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참여자가 말한 내용 중 이해되지 않거나 모호한 내용은 추가 질문하여 자세히 설명하도록 요청하였고, 확인을 통해 자료의 타당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종료 후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인터뷰는 유방절제 후 유방암 생존자들의 인조유방 사용경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을 하면서 참여자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시간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평균 소요시간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였다. 불명확한 부분은 참여자에게 다시 확인하여 면담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새로운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실시하였다. 녹음된 면담내용은 그들이 표현하는 말을 그대로 옮기고 문서 파일로 저장하여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매회 면담이 끝난 후 녹음된 내용은 연구보조원이 필사하였고 연구자가 녹음된 내용이 정확하게 필사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포커스그룹 종료 직후에는 이전에 진행한 그룹과 공통되는 점과 다른 점, 다음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확인해야 할 점 등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녹음된 자료를 반복하여 들으면서 유방암 생존자의 인조유방 사용경험을 나타내는 관련 진술들을 필사된 자료에서 찾아낸 후 의미있는 내용에는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포커스 그룹 내와 각 그룹 간에 유사한 주제들을 비교 대조과정을 거치면서 유사한 내용들을 영역에 맞게 재정리하고, 이를 범주화한 후 주제를 추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모든 참여자가 구술한 자료로 돌아가서 참여자의 경험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엄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Lincoln과 Guba (1985)의 기준을 따랐다. 연구참여자의 진술이 정확히 이해되었는지를 참여자들에게 확인하여 신뢰성을 높였다. 전이성(Transferability)은 연구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인데, 인조유방을 처음 이용하고 있거나 인조유방을 재구매한 적이 있는 여성을 포함하였으며, 부착형 인조유방 사용경험이 있는 여성 등을 포함하여 다양성을 확보하였다. 의존성(dependability)과 확증성(confirmability)을 위해 연구과정을 자세히 기술하였고, 참여자들의 진술문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인조유방사용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결론을 계획하지 않고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참여자들의 경험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하여 연구자의 선입견이 배제되도록 노력하였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참여자의 연령은 43세에서 72세 범위이고 평균 55.8세이었다. 진단 시 유방암 병기는 0기 2명(5.0%), 1기 11명(27.5%), 2기 20명(50.0%), 3기 7명(17.5%)이었다. 유방절제술을 한지 1년 미만인 여성은 2명(5.0%), 1~2년 미만 7명(17.5%), 2~3년 미만 3명(7.5%), 3~4년 미만 3명(7.5%), 4~5년 미만 3명(7.5%), 5년 이상 22명(55%)이었다. 최종학력은 중학교 4명(10.0%), 고등학교 31명(77.5%), 대학교 2명(5.0%)으로 대부분이 고등학교 졸업자이었다. 경제상태가 상인 참여자는 2명(5.0%), 중 17명(42.5%), 하 16명(40.0%), 무응

답이 5명(12.5%)이었다. 전체 참여자 중 36명(90.0%)이 전업 주부였고, 3명(7.5%)이 전일제, 1명(2.5%)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참석자 전원이 인조유방과 인조유방 브라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참석자들이 인조유방을 하루에 어느 정도 착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밖에 나갈 때만 착용 18명(45.0%), 잘 때 제외하고 항상 착용 8명(20%), 잘 때도 착용 1명(2.5%), 밖에 나갈 때와 집에서 가끔 착용 10명(25%), 무응답 3명(7.5%)이었다. 현재 인조유방용 브라를 사용하고 있는 참여자는 31명(77.5%), 사용하고 있지 않은 참여자는 9명(22.5%)이었다.

2. 인조유방 사용과 관련된 주요 현상

유방암으로 유방절제술을 한 여성들 중 인조유방을 사용하는 여성들의 인조유방 사용경험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현상은 ‘인조유방 구입 및 재 구입 부담감’, ‘인조유방을 불규칙적으로 착용함’, ‘만족스럽지 못한 인조유방용 브라’, ‘감추려하거나 터놓고 얘기함’이었다.

1) 인조유방의 구입 및 재 구입 부담감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인조유방이 비싸서 구입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했고, 인조유방이 더 이상 사용을 못하게 될 정도가 될 때야 재 구입을 하고 있었으며, 고가에 구입한 제품에 변형이 생겼을 때 사후 서비스가 더 나아졌으면 하고 바랬다. 뿐만 아니라 참여자 전원이 인조유방구입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품이 수입품이어서 비싼 면도 있기 때문에 수입품에 의존하지 말고 국내개발 및 생산을 통해 가격이 저렴해지기를 바랬다.

(1) 구입비용이 부담스러움

참여자들은 인조유방이 비싸서 선뜻 구매하지 않게 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했다. 일부 여성은 인조유방을 구입하는 비용이 40~50만원 정도로 고가여서 구입을 미루다가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고 체형이 약간씩 뒤틀린다는 느낌이 들어 큰맘을 먹고 구입하게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인조유방을 구입하는 비용이 고가이기 때문에 한 개 이상을 동시에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참여자들의 인조유방 구입처는 주로 자신들이 수술을 받은 병원이었고, 병원에서 자신이 수술한 것을 아니까 편하기도

하고 믿을만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이즈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어디에서 구입해야 하는지 잘 몰라 병원에서 주로 구입했으며, 이외에도 실리콘 인조유방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판매처를 직접 방문하여 구입한 여성도 있었다. 하지만 병원외의 장소에서 구입한 여성들은 인조유방 사이즈를 재는 과정에서 수치심이 들었고, 이런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으며, 없는 가슴을 보여주는 것이 장애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참여자들은 수술 후 3개월, 5~6개월, 1년 또는 3년 후에야 인조유방을 구입하는 등 구입시기가 다양하였다. 구입이 늦어진 이유는 수술 부위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 등의 치료가 늦어졌거나 상처에 감염이 생기는 등과 같이 수술 부위와 관련된 이유도 있었다. 이외에도 병원에서 인조유방을 구입하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거나 몰라서 또는 당장 필요성을 못 느껴서 구입을 미뤘다는 여성도 있었다.

“5개월 이후에야 했어요. 그냥 생긴 대로 살다 죽지 뭐 이제 또 제가 나이 먹어가지고 시집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살자 했거든요. 그랬는데 체형이 거울을 보니까 내 어깨가 앞으로 뒤틀리는 그런 기분이 들고 내가 걷는 자세의식, 이쪽으로 팔을 자꾸 자꾸 팔을 움츠리게 도더라고요. 그렇게 거울을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책자를 처음 주더라고요. 3개월 되면 그걸 하라고 책자에 나와 있더라고요”

(2) 재 구입 시기를 최대한 늦춤

참여자들 중에는 유방절제술을 한지 오래되어 인조유방을 재구입한 사례도 있었다. 재구입시기는 2년 만에 교체한 경우도 있었지만, 주로 5년 이상 사용하고 난 이후였다. 일부 여성들은 인조유방을 너무 오래 사용하여 인조유방이 닳아서 액체가 일부 새어 나오게 되면 반창고로 부치거나 랩으로 싸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더 오래 사용하다가 교체하고 있었다. 10년에 두 번 또는 12년에 두 번 구입한 경우도 있었으며, 구입에 대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재구입자들은 병원 등에서 바자회 등을 통해 가격이 할인될 때 할인 행사를 통해 구입하고 있었다.

(3) 예기치 못한 인조유방 변형

참여자들 중 소수는 인조유방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구입한 지 1년 이내에 기포가 생겨서 교환을 하는 사례가 있었다. 인

조유방에 기포가 점차 많아져 참여자가 판매업체에 얘기를 했을 경우 교환을 해주었지만, 교환을 해주는 과정에서 구매자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처럼 대하여 기분이 매우 상했다고 했으며, 인조유방과 관련하여 판매업체의 사후 서비스(A/S) 개념이 아예 없는 것 같다고 불만스러워했다. 기포가 생기는 것 외에도 참여자들은 실리콘 제품의 인조유방을 오래 사용하면 밑으로 쳐져버리고, 오그라들고, 수축이 되는 데 이러한 변형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했다.

2) 인조유방을 불규칙적으로 착용함

참여자들은 인조유방을 항상 착용하기보다 대부분 외출할 때만 주로 착용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인조유방이 실리콘이어서 촉감은 좋지만 무겁고, 통풍이 잘 안되어 땀이 차고, 잘 맞지 않아 사용할 때 불편하며, 인조유방의 착용이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1) 무거워서 덜 사용하게 됨

참여자들 대부분 인조유방이 무겁기 때문에 가벼운 스펀지로 만든 인조유방과 번갈아 사용하고 있었다. 실리콘 인조유방은 무겁기 때문에 브라 끈이 쳐지고, 어깨와 등이 아프고 걸리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탈의하면서 무조건 벗는다는 여성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비해 스펀지로 만들어진 인조유방은 가볍기는 하지만 걸어 다니다보면 거꾸로 올라가 제자리에서 벗어나 잡아끌어 내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했다.

일부 여성은 인조유방용 브라보다 훨씬 압박감이 덜하기 때문에 셔츠형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셔츠형에 실리콘을 넣으면 축 처지기 때문에 실리콘 인조유방을 사용하기 보다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스펀지를 넣는다고 했다. 참여자들은 실리콘 인조유방이 무겁기 때문에 실리콘을 가볍게 하거나 스펀지와 보완한 인조유방이 만들어지길 바랐다.

(2) 통풍이 잘 안되어 땀이 참

참여자들은 인조유방을 착용할 때 덥고 땀이 찬다고 호소하였다. 특히 여름에는 실리콘으로 된 인조유방을 착용하면 매우 덥기 때문에 외출 시에도 스펀지로 만들어진 인조유방을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갱년기 증상을 보이는 여성들은 열이 생기는 것으로 인해 인조유방 착용하는 것을 더 힘들어했다. 대부분의 여성은 가슴 부착 면이 밋밋한 형태의 실리콘 인조유방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 보다는 가슴에 닿는 부분이 살짝 파여서 공간이 좀 있는 형태가 그 사이에 손수건을 넣어 땀 흡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더 좋다고 했다.

“여름에는 더워서 그 실리콘 같은 거 못해요. ~아휴 못해요. 땀나가지고” “좀 시원한 그런 재질은 없나요? 너무 더워요 막 그거만 빼면 날아갈 것 같아요. 손수건이 축축이 젖어요.”

“갱년기 증세가 심한 여성은 인조유방 착용하는 브라를 입었다가 너무 더우니까 벗어가지고 또 다른 일반 브라에다가 그 패드를 겹겹이 해가지고 해보고, 그럴 때마다 참 느끼는 것은 예전의 그 모습은 다 어디로 가고 너무나 위축된 참 초라한 제 자신을 느끼죠.”

(3) 잘 맞지 않아 불편함

참여자들 중 인조유방의 크기(사이즈)가 자신에게 잘 맞다는 여성도 있었지만, 인조유방이 자신의 유방절제술 이전 유방에 비해 크거나 작아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여성도 있었다. 처음 피팅을 할 때에는 각 개인에게 맞는 맞춤이라고 생각했으나, 각자 절제한 부위와 찌그러진 부위를 고려하여 개인별로 맞춤 제작된 제품이 아니어서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사이즈를 고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맞춤이라는 표현에 대해 “나도 내 몸에 맞추는 줄 알았어요”라고 다소 불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인조유방을 구입하고 난 후 체중이 감소하거나 증가한 여성들은 특히 인조유방이 자신의 사이즈에 맞지 않고 크거나 작다고 느끼고 있었다.

“가짜가 작아요? 난 진짜가 작아”

“근데 처음에 그걸 살 때 제 유방보다 살짝 컸어요”, “입으면 차이가 나요. 이쪽으로 쏠리고, 저는 그래서 잘 안 해요”, “나는 조그만 걸 하고 싶은데 가슴이 크다고 저렇게 큰 걸 갖다 주니까 왜 저렇게 큰 걸해야 하냐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 하고 가져오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얼마나 징그러운지... 그런데 그걸 해야 체형이 안 바뀐다고 그러던데...”

참여자들은 인조유방이 무겁고 너무 불편하니까 인조유방을 사용하는 대신 브라 속에 패드를 두 개 또는 세 개 겹쳐서 모양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는데, 일부 여성은 이런 자신이 참 비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극단적으로 나머지 유방을 절제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여성도 있었다.

“나는 가슴이 커서 하나가 없으니까 보기 싫어서 나머지도 없애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어. 진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 가슴하나가 크니까 덜렁덜렁 거리니까

보기 싫으니까 차라리 아예 없애버리고 그냥 딱 하나 끈도 없어도 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인조유방 착용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는 인조유방을 착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집에서 착용을 안 하기 때문에 누군가 갑자기 찾아오거나 할 때에는 납작한 가슴이 불룩하게 보이도록 양말 등으로 모양을 만들어 넣거나, 한쪽 주먹을 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이 있게 보이도록 만든다고 하였다. 또는 조끼 등을 걸쳐서 가슴이 납작하게 보이지 않도록 신경을 쓴다고 했다.

(4) 착용이 자연스럽지 못함

참여자들 중에는 인조유방을 착용하였을 때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젖꼭지 모양이 안보여서 옷 모양에서 다른 쪽 유방과 차이가 나거나, 점질방 같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누워있는데 한쪽 유방은 납작하게 모양이 변형되는 것에 비해 인조유방은 봉긋 솟은 상태를 유지하는 모양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나이가 들어서 자연적인 유방은 점차 쪼그라드는데 비해 인조유방은 그렇지 않아서 자연스럽지 못하다 생각하고 있었다.

“수술하신 분이 시간이 지나서 나이를 먹으니까 수술한 건 그대로 있고, 이제 다른 쪽은 쪼그라들어가지고 쳐져가지고 모양이 얼마나 웃긴데”

(5) 체형 변형이 신경쓰임

참여자들 중 일부 여성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체형이 변형되는 지를 체크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가끔씩 절제된 쪽을 만져보면서 약간 튀어나왔다고 느낄 때에는 스스로 그 부위를 마사지 하거나 꺾꾹 눌러준다고 했다. 참여자들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것을 느낄 때도 있지만,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등이 굽었다는 얘기를 해서 체형이 변형된 것을 알기도 했다.

참여자들 중에는 체형변형을 막기 위해 인조유방을 착용하니까 ‘안정감이 더 좋다’고 느끼는 여성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인조유방을 불규칙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일부 여성들은 등이 굽고 쏠리는 등 체형이 변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헬스, 수영, 마사지나 스포츠 마사지로 근육을 풀어주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외래를 방문하는 동안 거의 체형체크를 한 적이 없었으며, ‘만약 체형체크를 했

으면 거기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체형변화를 예방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남편이 뒷모습을 보고 한쪽 어깨가 내려앉았다고 해서 구입하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브래지어에 뿔만 넣어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보니까 내 몸이 약간 틀어진 것 같더라고요. 하고나니 안정감이 더 좋더라고요. 하니까 나는 좋은 것 같아요.”

3) 만족스럽지 못한 인조유방용 브라

참여자들은 인조유방용 브라를 구입할 때 선택의 폭이 좁은 것에 대해 아쉬워했고, 일부 여성들은 브라를 원하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참여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조유방용 브라가 점차 편안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1) 선택의 폭이 작음

참여자들은 인조유방용 브라가 예쁘지 않고, 디자인이 다양하지 못하고, 투박하게 생겼고, 끈이 너무 두툼해서 얇은 옷을 입었을 때 잘못하면 어깨 끈이 보일까봐 불안하다고 하였다. 게다가 몸을 굽혔을 때 또는 파인 옷을 입을 때 몸 안이 들여다보이는 게 신경 쓰인다고 했다. 그래서 레이스도 있고, 누드 끈도 할 수 있는 브라가 있었으면 좋겠고, 모양이 예쁜 일반 브라들은 인조유방을 넣는 게 맞지 않아서 사용을 못하는데 일반브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일부 참여자들은 인조유방용 브라가 대부분 수입품이다 보니 한국 사람의 체형에 맞게 디자인된 것이 없는 것 같고, 인조유방을 넣었다 뺄 수 있는 기능 외에 또 뭐가 일반브라보다 더 좋은지 의아해했으며, 가격에 비하여 기능적인 장점이 많지 않다고 여기고 있었다.

(2) 원하는 모양으로 일부 변형하여 사용함

참여자들 중에는 인조유방용 브라를 하고 몸을 굽혔을 때 유방 없는 것이 들여다보이는 게 싫어서 레이스를 구입하여 손수 바느질로 브라에 레이스를 덧대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 양쪽 브라 캡 사이에 레이스가 달린 형태의 브라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분도 있었으나, 이런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워 손수 만들어 쓴 여성들도 있었고, 이런 정보를 자조모임에서 공유하고 레이스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같이 만들어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참여자들 중 일부는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이전에 전혀 몰랐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 아주 유용한 정보를 얻었다고

기뻐하기도 했다.

(3) 인조유방용 브라 착용이 점차 편안해져감

참여자들 대부분은 인조유방용 브라를 착용하는 것이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불편하다고 했으나 일부 여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적응되어 자연스러워졌다고 했다. 오히려 스포츠 브라를 했더니 박음질 방법이 달라 수술 부위를 압박해 특수브라가 더 편하다는 분도 있었다.

“1년 있다가 했어요. 처음에는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소화도 안 되고, 이제는 안하면 어디도 못가요.”

4) 감추려하거나 터놓고 얘기함

참여자들은 인조유방을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활동제약이 많아졌고, 괜찮다고 생각하면서도 위축되기 때문에 가끔은 복원하고 싶어진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참여자들은 당당하게 수영장을 가거나 가족들 또는 친구들과 함께 목욕탕에 가서 유방암 환자임을 밝히며 유방암과 관련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기도 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유방절제술 또는 인조유방 사용 등에 관해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일부는 선별적으로 이와 관련된 얘기를 가족들과 한 적이 있으며, 특히 자조모임에서는 편안하게 모든 얘기를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복원한 유방을 스스로없이 보여주기도 하였다.

(1) 활동제약이 많아짐

참여자들 중에는 유방절제술 후에 수영장이나 목욕탕, 찜질방, 헬스클럽 등을 전혀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유방절제를 한 부위가 노출될까봐 자주 가지 않았다. 이들은 절제된 부위를 남들이 볼까봐 웅크려들고, 수건 등으로 가리게 되고, 시선이 집중되는 게 싫어서 일부러 구석진 곳을 찾아가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다고 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아픈 게 죄는 아니니까 당당해져야 하는 데 잘 안 된다고 했으며, 특히 여러 사람이 수군거릴 때에는 나를 보고 얘기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한 참여자들은 유방절제술로 인해 파인 옷을 못 입거나 얇은 옷 입기가 어렵고, 야외 나들이 할 때 옷을 자유롭게 벗을 수 없으며, 요가 할 때에는 절제된 가슴 부위가 보일까봐 또는 엎드린 동작을 취할 때 인조유방이 터져버릴까 불안하여 조심스럽게 동작을 취해야 하고, 락스물에 비싼 인조유방이 망가질까봐 인조유방을 하고 수영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등 제한되는 것들이 많아졌다고 했다.

“팔이 잘 올라가지 않아서 수영을 시작했는데 수영을 다니는데 구석에서 씻거나, 집에 와서 씻기도 하고... 지금은 아무데서나 씻어요. 운동을 해야 하니까 헬스를 가기는 가는데 사람 특히 많으면 어떡하지 고민돼서 헬스 가는 게 약간은 자유스럽지 못해요.”

“이게 막 신경을 안 쓰고 비싸다 뭐하다 조심해야 한다 이런 강박관념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꾸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2) 가끔은 복원하고 싶어짐

참여자들 중에는 복원을 하면 인조유방을 사용하는 것 등에 대해 신경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가끔은 유방을 복원할 기회가 있으면 복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특히 복원한 사람의 유방을 보고 예쁘다는 생각이 들거나, 헬스클럽이나 수영장, 목욕탕 등에 맘 편히 가지 못할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고 했다.

유방복원 시 감내해야 할 통증과 힘든 과정들을 생각하면 복원을 하고 싶지 않다는 여성도 있었지만, 보험이 되지 않아 비용에 대해 부담스러운 것이 유방복원의 주요장애요인이었다.

“남편의 건강한 모습 보면 아휴 내가 기가 죽죠, 기가 죽어버려요. 여자로서 그런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수술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수술할까 하면 그 수술을 또 몇 번 해야 된다니가 그 겁이 나니까 주저를 하는 거지, 더 고통스럽잖아요.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3) 타인의 시선에 익숙해져감

참여자들 중 일부여성들은 목욕탕이나 찜질방 등을 한창동안 못 갔는데, 친구, 딸, 언니 등의 손에 이끌려 다시 가게 되었고, 점차 익숙해져서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갈 수 있다고 했다. 몇몇 여성들은 유방절제술 후 일부러 목욕탕을 가기도 했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는 내가 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먼저 다가가 옆 눈으로 쳐다보는 분들에게 유방암 때문이라고 말해버리면 친밀하게 이것저것 얘기하거나 더 잘 대해주시한다고 했다.

“처음에 오픈하는 게 힘들지 저는 아주 당당하게 홍보해요. 유방암 걸리면 이렇게 된다는지는 뭐 조심해야 그런 홍보도 하고... 저는 아이들 앞에서만 아이들은 쇼크가 올 수 있으니까 수영장에 가면 어린 아이들 앞에서만 이렇게 수건으로 가리던가 해요”

(4) 전혀 말하지 않거나 편안히 얘기함

일부 참여자는 인조유방을 ‘잘 감추어두고’,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고 했으며, 자녀들이 보면 안 되니까 잘 씻어서 케이스에 넣어둔다고 했다. 반면에 다른 참여자는 남편과 같이 인조유방을 만져보고 촉감이나 느낌을 얘기하기도 했으며, 씻어서 놔둔 인조유방을 똑같다고 신기해하며 반응을 보인 자녀들도 있었다. 자녀들 중에 못 본척하거나 아무 말도 안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같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지만, “이걸 어떻게(착용)해?”하며 인조유방을 만져보거나 “너무 덥고 힘들겠다”, “이거 차고 다니면 무겁겠다”, “내 것 나눠서 만들면 안 될까?” 등의 반응을 보인 자녀들에게는 비교적 편안하게 대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한 참여자는 나이 어린 손녀딸이 꼭꼭 눌러보면서 “이건 왜 말랑 말랑해? 샤워할 때 할머니는 왜 하다가 없어?”라는 반응에 애한테 이런 걸 보여주기가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참여자들은 남편에게는 ‘안 보여준다’, ‘못 보게 한다’, ‘남편 손이 오면 반사적으로 탁 쳐버린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남편한테 한 번도 수술한 부위를 보여준 적이 없고, 저만 보고 그러고 있다’는 참여자가 있었던 것에 반해, 남편의 경우 아내에게 ‘예쁜 가슴을 의사선생님에게 가서 하나 빨리 붙여달라고 해라’, ‘없는 쪽도 예쁘다’, ‘젖하고 똑같다’, ‘당신처럼 가슴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 사람은 또 어디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언니나 여동생과 인조유방에 대해 얘기를 잘하는 참여자도 있었지만, ‘그것(인조유방) 가지고 할 얘기가 없어서...’ 형제들과 전혀 얘기를 한 적이 없었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특히 친구들과는 인조유방에 대해 전혀 얘기를 안 한다는 참여자들이 많았고, 친한 친구일수록 얘기를 안 하게 된다고 했는데, 스스로 위축되어 죽어도 말하고 싶지 않고 친구들이 별로 관심 없어하거나 수술한 친구들은 절대 이해를 못하고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여성은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로 전체 안하고 부분만 했다’고 말한 적이 있으며, 친구들도 ‘이것에 대해 안 건드린다’고 했다. 이에 비해 자조모임 회원들은 너무 편안하고 언니나 동생 같고, 동질감을 느끼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다고 했다.

논 의

본 연구는 유방절제술을 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인조유방 사용 경험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인조유방을 사용하는 여성들은 구입비용에 대해 부담스러웠고, 불편감 때문에 불규

칙적으로 착용하고 있었으며, 인조유방용 브라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했으며, 인조유방에 대해 감추려하거나 터놓고 얘기하고 있었다.

참여자들 대부분은 인조유방과 인조유방용 브라 구입과 관련하여 비용부담을 호소하였고, 보험이 적용되어서 구입부담이 줄어들기를 간절히 바랐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아일랜드(Gallagher et al., 2009)나 호주(Livingston et al., 2003)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인조유방 구입에 대해 보험이 되거나 국가나 지방 단체로부터 구입비용에 대한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인조유방 구입에 대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제품이 수입완제품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유방암 생존자들은 인조유방이나 브라 구입에 대해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또한 선행연구(Gallagher et al., 2009)와 일관되게 본 연구결과 인조유방 구입에 대해 비용부담을 느끼는 여성들은 인조유방 구입을 미루는 경향이 있었다. 아일랜드 거주 여성들의 경우 고비용과 구입처까지의 먼 거리는 인조유방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이었다(Gallagher et al., 2009). 본 연구에서도 비용부담은 참여자들의 인조유방 구입 시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이었으나 구입 시 거리가 먼 것은 장애요인이 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많은 유방암 생존자들이 병원의 추후검진 시 또는 자조모임이나 바자회 등에서 인조유방이나 인조유방용 브라를 비교적 쉽게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거나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생존자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변두리나 시골 등에 거주하는 생존자들은 구입 시 어려운 점이 있는 등 추후연구에서 더 조사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생존자들은 인조유방 구입비용 부담으로 인해 교체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경향이 있었다. 연구에 의하면 인조유방은 2년이나 3년마다 또는 2~5년마다(Livingston et al., 2005) 교체할 필요가 있음을 권장하고 있다. 인조유방의 견고성을 고려해 볼 때, 모양이 망가지고 낡았다고 생각되기까지 인조유방은 일반적으로 2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Gallagher et al., 2009). 이에 비해 우리나라 생존자들은 보험이 되지 않아 인조유방이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조유방의 내용물이 흘러나와도 테이프를 붙이거나 랩을 씌워서 사용하다가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결과, 대부분의 생존자들은 5년 정도 사용했을 때 재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의 생존자들이 항상 착용하지 않고 주로 외출할 때에만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구

입비용에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여겨진다.

Livingston 등(2003)의 연구에서도 유방암 생존자들은 인조유방 구입에 대한 비용부담을 문제로 호소하였는데, 아일랜드의 경우 국가에서 유방절제술을 한 여성들에게는 처음 착용하는 인조유방과 두 개의 브라를 모든 여성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다(Gallagher et al., 2009). 특히 의료보험증이 있는 여성에게는 매 2년마다 한 개의 인조유방과 두 개의 브라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일률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지역별로 혜택 받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Gallagher et al., 2009). 호주도 호주전역에 걸쳐 주정부에서 인조유방 구입비를 보조해주고 있었지만, 지역에 따라 보조의 편차가 있고 보조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었다(Livingston et al., 2003).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 유방암 생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처음으로 과천시에서 2012년부터 완전절제술을 한 여성에게 인조유방과 인조유방용 브라를 제공하는 'Re-Mamma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Lee, 2011). 하지만 본 연구의 참여자 대부분이 비용부담을 호소하였고 보험에서 이런 비용의 보조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볼 때, 모든 유방암 생존자들에게 골고루 인조유방 구입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면 좋겠지만, 과천시에서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회가 제공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제적 보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생존자들은 비용부담을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료보험혜택이나 세제혜택 등을 통해서라도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참여자 대부분이 실리콘 인조유방을 불규칙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일부 참여자들은 인조유방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실리콘이 아닌 것을 대체하여 인조유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인조유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인조유방의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때(Glaus & Carlson, 2009), 참여자들이 인조유방 외의 다른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시판되고 있는 인조유방에 대한 만족 정도가 낮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와 달리 호주여성 10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인조유방 사용 패턴이 일관적이었으며 여성의 75%가 인조유방을 매일 또는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었고(Livingstone et al., 2005), 미국여성 5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84.7%의 여성들이 항상 착용하고 있었다(Glaus & Carlson, 2009). 반면 아일랜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인조유방을 항상 착용하고 있었으나 일부 여성은 인조유방을 착용하지 않는 것이

더 편안하기 때문에 항상 착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Gallagher et al., 2009).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인조유방을 항상 착용한다고 한 것에 반해 본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은 주로 외출 시에만 착용하고 집에서는 거의 착용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것은 참여자들이 인조유방을 착용하는 것이 신체균형을 유지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고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올 수 있는 체형변화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인조유방을 착용하는 것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인조유방을 규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장애요인으로 무게감, 편안하지 않음 등을 제시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도 일부 여성들은 무겁고, 착용 시 편안하지 않고, 착용했을 때 자연스럽지 못하고, 인조유방이 가슴 벽 전체를 감싸지 못하고, 유두가 볼록 튀어나오거나 제 위치가 아닌 곳에 있을 때 불만스러워했다(Gallagher et al., 2009; Healey, 2003; Livingston et al., 2003; Livingston et al., 2005).

본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은 인조유방이 무겁기 때문에 대안으로 스펀지 등을 사용한다고 했다. 이와 유사하게 8.2%의 아일랜드 여성들도 인조유방 대용품으로 패드가 들어간 브라를 사용하거나 어깨패드(shoulder pad) 또는 스펀지를 이용해 인조유방과 유사하게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다(Gallagher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실리콘 인조유방 대신 스펀지 형태를 사용했을 경우 걸어 다닐 때 스펀지가 제자리에서 벗어나 위로 밀려나기 때문에 이것을 끌어내려 제자리에 오도록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다. 이와 유사하게 아일랜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인조유방이 제자리를 벗어나는 문제가 보고되었다(Gallagher et al., 2009).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슴에 부착할 수 있는 인조유방의 경우 사용 후 피부자극이 심해져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한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피부자극을 최소화하는 부착형 인조유방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피팅에 있어서도 피팅을 한 후에 대략적인 사이즈를 고를 수밖에 없어 본 연구참여자들은 본인에게 꼭 맞는 개인맞춤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여겼다. 현재 대부분의 인조유방 제품들이 수입품이므로 우리나라 여성들의 유방모양에 맞게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타 국가 여성들에게 더 잘 맞는 모양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유방모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물론 이에 근거한 국내제품의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양쪽

유방의 크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Losken, Fishman, Denson, Moyer, & Carlson, 2005) 수술 전 3차원 영상을 이용하여 각 여성들의 유방모양을 고려한 개별 맞춤서비스를 통한 제품의 제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피팅은 내 몸에 맞는 인조유방의 사이즈를 고르는데 있어 중요하기도 하지만, 절제된 가슴을 노출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있어 매우 민감한 경험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고 더욱 더 전문가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유방암 생존자들에게 인조유방을 피팅하는 것은 착용 시 모습, 신체상, 여성 정체감에도 영향을 미친다(Roberts et al., 2003). 본 연구결과 피팅은 대부분 병원에서 이루어졌는데, 피팅 시 병원의 전문간호사가 피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조유방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병원에 와서 피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밖에도 개인이 업체를 찾아가거나 집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있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피팅은 주로 병원에서 이루어졌으며, 62.1%의 여성들이 병원에서 실리콘 인조유방을 피팅하였다(Gallagher et al., 2009). 피팅 시 첫 실리콘 인조유방 구입을 위한 피팅은 병원에서 유방암 전담간호사가하기를 선호했고, 반면에 재구입시에는 인조유방 판매점에서 훈련된 피팅전문가가하기를 선호했다. 한편 유방암 전담간호사와 판매점 피팅전문가들은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인조유방 피팅과 관련하여 전문가로서의 발전기회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Gallagher et al., 2009), 미국의 알라바마 주 등에서는 피팅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만이 피팅을 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Crumpton, 2010).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기준도 없고 병원에 피팅룸이 있거나 피팅룸과 함께 전담간호사가 배치된 경우는 매우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인조유방을 선택하는 데 있어 사이즈에 대한 만족감을 떨어뜨리고 불편한 피팅을 경험하는데 기여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이에 따른 교육은 무엇보다 필요하며, 병원이나 인조유방 판매점에 전문가가 배치되어 활용될 수 있어야 하고, 인조유방과 관련된 장소에 '유방암 여성들을 위한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라는 팸플릿 등을 설치하여 쉽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들 중 일부는 인조유방구입 후 체중변화로 인해 인조유방을 교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다시 구입하는 것을 미루기도 하였다. 특히 임신한 여성이나 체중증가를 유발하는 약물을 복용한 여성들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Gallagher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임신 등으로 인한 체중증가보다 수술 후 운동부족 등으로 인해 생긴 체

중변화로 특히 10 kg 이상의 체중 변화가 있을 때 인조유방 크기가 잘 맞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정기적인 체크와 함께 체중변화가 있는 생존자들에게 인조유방이 잘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인조유방이 잘 맞지 않는 것과 관련해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는데, 기여요인으로 피팅을 하지만 개별맞춤이 아니고, 수입품이기 때문에 한국여성의 체형에 제한적이고, 체중의 변화로 인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피팅을 했는데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잘 맞지 않는다고 하는지 더 조사될 필요가 있으며, 처음 착용 시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잘 맞음에도 불구하고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McGhee & Steele, 2010) 의료진이나 유방암 생존자들에게도 어떤 것이 잘 맞는 모양인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인조유방을 사용하는 생존자의 경우 실리콘제품이 무거워서 자주 착용을 안 할 때 체형변형이 올 수 있다(Rostkowska, Bak, & Samborski, 2006). 잘 맞지 않는 인조유방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어깨나 목, 등 쪽에 통증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원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유방암 생존자들에게 신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이지만, 본 연구참여자들 중 체형을 주기적으로 체크한다는 참여자는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항상 착용하지 않는 생존자들은 체형을 외래 정기검진 또는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며, 간략한 질문지 등을 통해 자주 사용하지 않는 생존자들을 조기에 스크린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인조유방용 브라가 비싸고, 여성스럽지 못하고, 선택의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참여자들은 브라가 더 맘에 들도록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수선하여 사용하거나 대안으로 다양한 제품의 브라들을 사용해보고 있었다. 이에 비해 소수의 참여자들은 인조유방용 브라에 대해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조유방용 브라의 사용에 점차 적응된다고 했다. 참여자들은 인조유방용 브라의 기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성스러운 것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인조유방용 브라들은 대부분 여성스럽지 못하고 기능만을 중요하게 앞세웠지만 기능적으로도 만족하지 않다고 했다. 아일랜드 여성들도 대부분의 인조유방용 브라의 스타일이 무겁고 여성스럽지 못하다고 했으며, 면으로 된 브라를 원하는데 많은 제품들이 나일론으로 만들어져서 땀과 자극을 야기한다고 했다(Gallagher et al., 2009). 그러나 본 연구참여자들은 제품의 소재에 대한 불만은 거의 표하지 않았으며, 디자인이 제한되어 있고 선택의 폭이 적은 것에 주된 불만이 있었다. 아일랜드 여성들을 대상으

로 한 연구의 경우 참여자의 16.2%가 브라에 대해 매우 불만족했거나 대체로 불만족하다고 했으며, 특히 브라의 스타일(32.4%), 색깔(32.7%), 돈의 가치(22.4%), 모양(20.0%) 등의 선택여지에 대해 불만족스러움을 표현했다(Gallagher et al., 2009). 아일랜드 여성들은 큰 사이즈의 브라를 구하기가 어렵고, 끈이 없거나 하단에 와이어(철사)가 없거나 투명 끈으로 되어 있으면서 인조유방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질 좋은 브라를 구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이에 반해 본 연구참여자들은 특정한 부분을 지정해서 얘기하기보다 TV나 인터넷쇼핑몰에서 광고하는 다양하고 예쁜 일반브라와 같이 여러 선택의 기회가 없다는 것에 불만을 표했다.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은 브라가 조여서 불편하다고 하였는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브라의 불편감이나 브라의 밴드가 조이는 것은 유방암 진단을 받은 생존자들의 신체활동에 있어 장애요인이 된다고 하였다(Gho, Steele, & Munro, 2010). 따라서 운동에 잠재적장애요소가 되는 부적절한 브라의 디자인은 유방암 생존자들이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자들은 인조유방용 브라를 착용하고 몸을 앞으로 숙였을 때 절제된 가슴이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 브라에 레이스를 덧대어 사용한다고 했다. 레이스가 달린 브라도 제품으로 있지만, 가격이 비싸 레이스를 따로 구입하여 덧대어 사용하는 것에 대해 만족스러워하고 있었다. 브라에 레이스를 덧대어 사용하는 것 등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있는 참여자도 있었는데, 이런 유용한 정보들은 구전으로 전수되기보다 동호회 또는 공유사이트 등에 탑재하여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책자 또는 리플릿 등으로 만들어 홍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아일랜드 여성 중에도 일반브라 안에 인조유방을 집어넣을 수 있는 포켓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수선하여 사용하는 것은 비싼 인조유방용품을 대체하기 위함이거나 시중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자신들만의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였다(Gallagher et al., 2009). 이에 비해 본 연구참여자들은 일반 브라들 중에 포켓이 있어서 추가로 스펀지 등을 넣을 수 있는 브라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체를 앞으로 굽혔을 때 가슴 절제된 것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레이스 등을 구입하여 추가로 덧대고 있는 것이 아일랜드 여성들과 달랐고, 아일랜드의 경우 브라에 포켓을 달아주는 서비스를 병원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 유방암 생존자들의 이러한 요구와 관련된 서비스 등은 병원 단위에서는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봉사자들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참여자들은 인조유방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노출되는 것

을 꺼렸다. 이들 대부분은 가끔씩 위축되기도 하고, 유방복원 이 하고 싶어지며, 운동이나 사회활동에 제약받을 때가 있다고 했다. 아일랜드 여성들은 수영, 일광욕, 옷을 사는 데 인조유방으로 인해 가장 영향을 받는다 하였고(Gallagher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유방 없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까봐 수영장이나 목욕탕가기를 꺼려하게 되고, 가게 되더라도 사용할 때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공용 탈의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 했는데(Gallagher et al., 2009),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볼 때 헬스장이나 수영장 탈의실에 유방암 생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배려 코너를 설치하는 것도 이런 불편함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참여자들 중 자녀나 남편 또는 친구들과 인조유방에 대해 얘기하기를 꺼리는 여성이 있는가 하면 자연스럽게 인조유방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이것에 대해 서로 편안하게 얘기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인조유방에 대해 얘기를 안 하는 이유로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인조유방에 대해 무관심해서일 수도 있고, 유방암 생존자들이 인조유방에 대해 보여주거나 노출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가족이나 친구들의 경우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거나 잘못 말하면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꺼려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유방절제술 후 많은 유방암 생존자들은 유방이 없는 자신에 대해 책망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반응을 나타내며(Hawkins et al., 2009) 파트너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변화를 경험하므로(Rowland et al., 2009) 인조유방을 착용하고 살아가야 하는 유방암 생존자들이 긍정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와 유방암 생존자 부부 단위의 교육이 여성들의 우울(Talley, Molix, Schlegel, & Bettencourt, 2010)과 부부간의 의사소통 향상에 효과적이었다(Baucom et al., 2009; Scott, Halford, & Ward, 2004). 따라서 유방암 생존자들이 자조모임 회원 이외에 배우자나 자녀, 또는 친구들과 인조유방에 대해 편안히 얘기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및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효과적인 간호중재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결론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인조유방이 비싸고, 덩고, 무겁고, 착용 시 불편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방암 생존자의 인조유방

구입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보험에서 인조유방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 지속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참여자들이 불편해하는 내용들에 대해 의료진들의 관심과 피팅 시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런 불편한 점들을 보완한 제품과 신소재를 활용한 제품들이 다양하게 개발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인조유방용 브라도 기능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기능성 이외에 미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고 시판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인조유방이나 브라에 대한 비용부담을 없애고, 착용 시 불편감이 최소화된다면 유방암 생존자들은 인조유방을 더 규칙적으로 착용할 것이고, 체형변형으로 인한 2차적인 고통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더 나아가 유방암 생존자들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방전담 간호사나 관련 간호사들은 유방을 절제한 여성들이 인조유방을 수술 후 즉시 착용하는지에 대해 사정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해 유방암 생존자들이 인조유방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간호하고 적응하도록 돕는 것은 유방암 생존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간호가 될 것이다. 특히 인조유방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재정부담 등의 경제적 이유일 경우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도움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추후관리로 체형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체형변화 방지를 위해 어떠한 점들을 고려해야 하고 주의해야 하는지 각 개인별 맞춤정보를 세심하게 제공해 주는 것은 유방암 생존자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될 것이다. 신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또는 관계적으로도 가족이나 친구 등과 인조유방에 대해 어떻게 의사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해야 편안해지고 적응할 수 있는 지 등 의사소통 기법을 포함한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여성전문병원의 유방암 생존자 중 인조유방을 사용하는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였기에 교육정도와 지역 등이 편중된 경향이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인조유방을 사용하는 국내 여성들의 경험에 관한 연구가 매우 소수에 불과한 현 상황에서 인조유방 사용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근거기반의 간호를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추후 인조유방과 관련된 환자 및 전문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REFERENCES

- Baron, R. H. (2007). Surgical management of breast cancer. *Seminars in Oncology Nursing*, 23, 10-19.
- Baucom, D. H., Porter, L. S., Kirby, J. S., Gremore, T. M., Wiesenthal, N., Aldridge, W., et al. (2009). A couple-based intervention for female breast cancer. *Psychooncology*, 18, 276-283.
- Choi, H. S., & Lee, K. M. (2001).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astectomy bras and breast prosthe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1, 5-18.
- Crumpton, G. (2010, November). *Alabama passes post-mastectomy fitter licensure legislation*. *Business News*. Retrieved December 20, 2011, from <http://www.oandpbusinessnews.com>
- Gallagher, P., Buckmaster, A., O'Carroll, S., Kiernan, G., & Geraghty, J. (2009). Experiences in the provision, fitting and supply of external breast prostheses: Findings from a national survey. *European Journal of Cancer Care*, 18, 556-568.
- Gallagher, P., Buckmaster, A., O'Carroll, S., Kiernan, G., & Geraghty, J. (2010). External breast prostheses in post-mastectomy care: Women's qualitative accounts. *European Journal of Cancer Care*, 19, 61-71.
- Gho, S. A., Steele, J. R., & Munro, B. J. (2010). Is bra discomfort a barrier to exercise for breast cancer patients? *Support Care Cancer*, 18, 735-741.
- Glaus, S. W., & Carlson, G. W. (2009). Long-term role of external breast prostheses after total mastectomy. *Breast Journal*, 15, 385-393.
- Hawkins, Y., Ussher, J., Gilbert, E., Perz, J., Sandoval, M., & Sundquist, K. (2009). Changes in sexuality and intimacy after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cancer. *Cancer Nursing*, 32, 271-280.
- Healey, I. R. (2003). External breast prostheses: Misinformation and false beliefs. *MedGenMed: Medscape General Medicine*, 5, 36.
- Kim, J. H. (2004). *The experience on life of women with mastectom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 Kim, Y. L. (2010). The complexity of body image in post-mastectomy women and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4, 129-147.
- Lee, D. H. (2011, December). *Beauty to breast cancer survivors: Gwacheon 'Re-Mamma' project*. *Money Today*. Retrieved January 20, 2012, from <http://www.mt.co.kr>
- Lee, I. J. (2002). *A study on psychosocial needs of breast cancer 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Y. S. (2007). Psychosocial experience in post-mastectomy

- wome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9, 99-124.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Livingston, P. M., White, V., Roberts, S., Pritchard, E., Gibbs, A., & Hill, D. J. (2003). Access to breast prostheses via a government-funded service in Victoria, Australia. Experience of women and service providers. *Evaluation Review*, 27, 563-568.
- Livingston, P. M., White, V. M., Roberts, S. B., Pritchard, E., Hayman, J., Gibbs, A., et al. (2005). Women's satisfaction with their breast prosthesis: What determines a quality prosthesis? *Evaluation Review*, 29, 65-83.
- Losken, A., Fishman, I., Denson, D. D., Moyer, H. R., & Carlson, G. W. (2005). An objective evaluation of breast symmetry and shape differences using 3-dimensional images. *Annals of Plastic Surgery*, 55, 571-575.
- Mahon, S. M., & Casey, M. (2003). Patient education for women being fitted for breast prostheses. *Clinical Journal of Oncology Nursing*, 7, 194-199.
- McGhee, D. E., & Steele, J. R. (2010). Optimising breast support in female patients through correct bra fit. A cross-sectional study. *Journal of Science and Medicine in Sport*, 13, 568-572.
- National Cancer Information Center. (2010). Breast Cancer: Treatment. Retrieved November 23, 2010, from <http://www.cancer.gov/kor/> Accessed November 23, 2010.
- Roberts, S., Livingston, P., White, V., & Gibbs, A. (2003). External breast prosthesis use: Experiences and views of women with breast cancer, breast care nurses, and prosthesis fitters. *Cancer Nursing*, 26, 179-186.
- Rostkowska, E., Bak, M., & Samborski, W. (2006). Body posture in women after mastectomy and its changes as a result of rehabilitation. *Advances in Medical Sciences*, 51, 287-297.
- Rowland, J. H., Meyerowitz, B. E., Crespi, C. M., Leedham, B., Desmond, K., Belin, T. R., et al. (2009). Addressing intimacy and partner communication after breast cancer: A randomized controlled group intervention. *Breast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118, 99-111.
- Scott, J. L., Halford, W. K., & Ward, B. G. (2004). United we stand? The effect of a couple-coping intervention on adjustment to early stage breast or gynecological cancer.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72, 1122-1135.
- Talley, A., Molix, L., Schlegel, R. J., & Bettencourt, A. (2010). The influence of breast cancer survivors' perceived partner social support and need satisfaction on depressive symptoms: A longitudinal analysis. *Psychology & Health*, 25, 433-449.
- The Korea Central Cancer Registry. (2012). *National cancer registration & statistics 2009*. Seoul: National Cancer Center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1). Breast cancer: The advantage of early detection. Retrieved October 4, 2011, from http://www.who.int/kobe_centre/mediacentre/en